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후배들이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 과거를 판단하는 것도 온당한 평가는 아니다.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말해주듯이, 긴급조치 이후 학원지울화가 실시된 84년까지 이 땅의 학원은 곧 전쟁터였던 것이다.

단 몇 분이라도 더 외치기 위해 뺨을 몸에 묶고 건물에 매달려야 했던 시절, 강의실 안팎에 도사린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종일토록 긴장을 멈출 수 없었던 시절, 옥상에서 뿌린 유인물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어디선가 달려온 경찰들이 그 대부분을 공중에서 나꿔채던 시절, 그리고 어렵사리 찢던 스크림이 깨지면 좀 전까지 함께 어깨를 걸었던 사람이 내 팔을 쥐어 연행하던 시절. 그 참혹한 시절을 몸으로 헤쳐온 선배들의 '비대중적 활극'이 없었다면 80년대 이후 경희운동의 비약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날의 활극이 있는지 2년 후, 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팔뚝을 걷어부친 경희의 용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일어섬은 한결같이 2년 전 학교를 뒤흔들어 놓았던 선배들의 외로운 투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역사는 제 몸뚱이에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겨 놓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당시의 색채와 음향을 제거한 채, 그저 흑백의 무성영화를 보듯 무감동하게 그것을 읽는다. 그러나 그날의 활극을 당시의 빛깔과 목소리로 되살려 보라. 국방색 학원 핏빛 함성, 뿌연 새벽빛, 함성소리, 그리고 군화발 소리... 그것은 더이상 소수의 활극이 아닌 생생한 저항의 역사로 되살아올 것이다.

밤새도록 '가리방'의 필경을 굶어 만들어낸 갱지로 된 유인물. 거사를 알리는 비상벨 소리. 연단도 마이크도 대중도 없던, 그러나 분노만은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의 세 청년의 무용담. 그때를 아십니까?



고려대 경제학과 76학번,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엄주웅_스카이라이프 마케팅본부장(현)

우리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 아파트 14층에선가 떨어지셨는데 나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했다. 노동운동한답시고 모 방송사 노조의 행사 뒤풀이에서 술 시합하듯 음주에 골몰하던 때였다.

의식이 인사불성의 경계에 이르렀을 즈음 여동생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마신 술을 삭이지 못해 연신 구토를 해대고 있었다. 우리 가족들은 눈물 범벅이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둘째 아들 놈이 술 냄새와 함께 문간에 와서 엎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3일장 내내 나는 병어리였다. 문상객들이 우리 어머니 고생을 운운할 때마다 주눅이 들었다. 여기 저기 모여 떠드는 손님들이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다. 안쓰러웠던지 누군가 말을 던졌다.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게 전부 네 탓인 것처럼...” 내겐 그 말이 거꾸로 들렸다.

그 말처럼 4남 1녀 우리 형제들의 딱 5분의 1만큼만 죄가 있었으면 싶었다. 나보다 더 오래 어머니와 함께 산 “경상도 마초” 아버님이 어머니 우울증에 더 기여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똑똑히 알고 있었다. 죄는 지은 놈이 가장 잘 안다. 드디어 어머니 육신을 땅에 묻던 날, 나는 자제의 마지막 독이 터져 버렸다. 울부짖으며 하늘께 벌을 청했다. “하느님, 저 천벌 주세요, 천벌 주세요!”

내 나이 스물한 살 늦가을 어느날 아침에 나는 집을 떠났다. 그날 학교에서 난 시위 주동을 하기로 했다. 내 판에는 이제 세칭 ‘일류 대학생’에서 ‘어둠의 자식’이 될 참이었다. 정든 동생들을 한 동안 못 볼 것은 당연하고, 짧지 않은 감옥살이를 한 다음, 취직과 안정된 생활을 저 멀리하고 고생스러운 삶의 길을 밟을 것이었다. 이미 부모님께는 자못 비장한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후배에게 맡겨 놓았다. 대문을 나서 집 옆 전봇대를 한동안 쓰다듬었다. “전봇대야, 전봇대야. 언제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큰 길이 나올 때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영등포 신길동 그 골목의 전봇대가 오랫동안 기억에 섰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리 비장한 정서가 소용될 일이나 했을까 싶다. 요즘 같으면 귀싸대기나 한 대 맞고 집으로 돌려보내질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혹한 시국은 사소한 반항에도 무거운 형벌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나 역시 미숙하리 만치 과감하게 젊은 시절이었다. 실제로 내가 주도한 데모는 젖은 장작처럼 타지도 못한 채 꺼졌다. 10분이나 끌었을까, 강당에서 특강을 하던 교수의 마이크를 빼앗아 잡고 시작한 나의 ‘학생운동 졸업식’은 별로 흥행이 안됐다. 그리고는 학생처장과 교직원들에게 붙잡혀 대학 사무실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었다.

데뷔작의 실패를 만회라도 하려 했던 것일까? 그로부터 스물여섯까지 감옥을 세 번 들락 날락했다. 군대도 가지 못한 나는 거기서 세상 공부를 했고, 철이 들었다. 생애의 독서 대부분을 했고, 일생의 교우들 여럿을 만났다. 그러나 ‘담 안에 있는 도둑놈’은 편하다 했던가,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잘 모른다. 출소 후에 가족들 스스로가 내게 쉬쉬하지 않았다 해도, 나는 결코 그 고초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나의 행동은 국가관이 투철하신 예비역 중령 우리 아버님에게는 치욕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덕분에 난생 처음 형무소 구경을, 그것도 실컷 하게 되었다. 아버님은 첫 면회 때 아들놈하고 한바탕 논쟁을 하다 돌아가신 후, 한겨울에도 집에 불을 못 때게 했다. 아들 놈이 찬 방에서 지내는데 어찌 가족이 편하겠냐는 오기의 발로였는데,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한 삼사

년 동안 겨울에 불기없이 지냈다.

법 없이도 살던 어머니는 아들 일로 법무부 쪽에 드나들면서부터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지 말대로 수입료 비싼 일반(인권변호사가 아니라는 뜻에서) 변호사를 구해 놓고 내게는 반성문 쓰고 하느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하던 어머니였다. 불과 몇달도 되지 않아 교도관에게 욕하고 법정에서 소리지르는 전형적인 구속자 가족으로 변해 갔다. 감옥에서 나온 뒤 나는 다른 동료 가족들에게서 어머니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전혀 믿기지 않았다.

활약상이라니, 원래 몸매조차 가냘프신 어머니에게 그런 용어가 가당하려면 어찌 골병이 뼈 속에 들지 않으랴. 살림에다 다른 가족들 치다꺼리는 차치하고서, 감옥에 들어왔은 자식을 위해 굶 빼놓고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이리저리 다니며 듣고 당한 막말과, 육설, 외면, 천대 따위까지 더한다면 어찌 성한 사람 속이 남아 났으랴. 어머니에게 팔게 한 다리뎀 만으로도 나는 그분 말년을 괴롭힌 만성 관절염의 병원균인 셈이다.

감옥에서 나와서도 나의 ‘어머니 인생 값어먹기’는 끝나지 않았다. 전과자가 되어 좋은 직장 구하기는 글렀으니 공장에 들어가(‘위장취업’이라는 말은 빼고) 기술이나 배우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속아 넘어갔다. 나는 거기에다가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모여 치는 고스톱 판에 돈이 없어 끼지 못하고 주뿔거리는 모습을 선사했고, 당신이 방안 걸레질조차 힘들어 할 만큼 쇠약해지실 때까지 두 아이를 낳는 대로 척척 갖다 맡겼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머니는 내가 반 백수로 지내는 게 시국 탓이라고 생각했다.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 친구를 만났다. “네가 둘째로구나, 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은행 가시면 창구 뒤에 앉아 있는 은행원을 보면서 ‘아이구, 우리 주옹이가 저기 앉아 있어야 할 건데...’ 하고, 구청을 가서 사무실 책상을 보면 ‘우리 둘째가 제대로라면 저기 앉아 있을 건데...’ 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딱 10년이다. 세상은 바뀌었고 나도 변했다. 어머니의 비원 대로 지금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다. 나 또한 더이상 무슨 원을 가질 나이가 아니므로 더 크게 바랄 게 없다.

나는 지금까지 두 가지 꿈을 꾀 왔는데 나름대로는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파랗게 젊은 시절에는 겁없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꿔고, 나이 들어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

다. 세상이 충분히 바뀌었는지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렬한 나로서는 이만하면 만족이다. 설사 덜 바뀌었다고 해도 근 20년 이상 꿈을 좇았으니 그만하면 되었다. 두 번째 소망도 뒤늦게 직장을 얻어 처음으로 가장 노릇하면서, 언제 떨어질까 하는 모가지 걱정을 주말에 기를 쓰고 가는 등산으로 달래는 정말 평범한 놈이 되었다. 하지만 제 어머니 반생을 잡아먹은 한은 결코 달래지지도 씻겨지지도 않는다. 필경 영원히 그럴 것이다.

내 친구 가운데는 부친보다 먼저 세상을 뜬 이가 있다. 운명의 '학생운동 졸업식'을 같이 치렀던 나의 긴급조치9호 위반 공범 유구영 역시 10년 전에 죽었다. 그날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이끌고 강당 앞에서 나와 합류하기로 했는데, 내가 오래 못 버티는 바람에 어긋나 버렸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나와 비슷한 삶의 길을 걸어 역시 부모님을 진창으로 끌어들이었다. 감옥살이, 위장 취업, 반 백수, 가난, 신세지기 등등, 그렇고 그런 전형이었다. 중국에는 노동단체에서 일하다 너무 바빠 간담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죽었다. 그의 부친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해마다 오월이면 마석 모란 묘지에 나타나 우리들을 안쓰럽게 한다. 그 녀석에 비하면 나의 불효는 새발의 피다. 하지만 난 살아 있고, 따라서 죄책의 형벌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다.

긴급조치9호, 그 유치하고도 우악스러운 권력의 장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의 인생도 제법 달라졌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만큼 극적으로 달라진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당사자들이야 박해를 각오하고 선택의 행위를 했다고 치자. 다시 말해 저 좋아서 한 일 아닌가? 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엉터리 같은 시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어머니와 같은 분들의 한은 누가 어떻게 풀어 드릴 수 있을까?

풀지도 갚지도 못할 것이다. 살아서는 물론이고 수십 번 다시 태어나 머리털로 신을 삼아 드린다고 해도 이승에서 받은 어머니 사랑은 갚지 못할 테고, 어머니를 잡아먹은 죄값도 영원히 치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한 나는 아직도 긴급조치9호 아래에 있다.

자유와 민주에서 차별금지와 화해, 그리고 평화로



우 원 식 연세대 토목공학과 76학번, 여성민우회 환경센터 자문위원,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제17대 국회의원(서울·노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현)

혜진에게

너를 만난지 일주일도 조금 지났구나. 학교에서 내준 '꿈'에 관한 숙제를 위해 나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당황했다. 왜 너의 꿈을 이야기하는 숙제 때문에 나를 만나야 하는지, 만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됐다. 너는 정치인이 되는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어떻게 실현하며 그 꿈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자고 한 것이었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즐거웠다. 너와 같이 맑고 밝게 사는 청소년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행복이란 다. 또 한편으로는 너처럼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을 갖게 된다. 혜진이 아버지님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의 아버지님 세대, 우리 세대는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 혜진이 아버지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왜 그런 여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세월을 왜 굳이 맑고 밝은 꿈을 꾸며 사는 너에게 이야기하려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쓰고 싶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불행했던 과